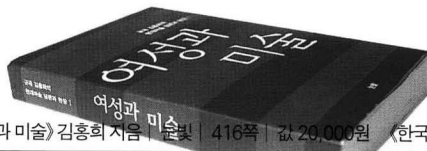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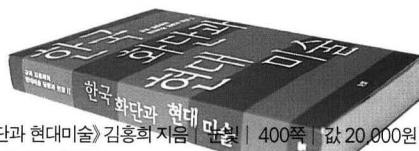


한국 현대미술과 여성미술의 현장을 거닐다



《여성 미술》 김홍희 지음 | 샘지 | 416쪽 | 값 20,000원



《한국 화단과 현대 미술》 김홍희 지음 | 샘지 | 400쪽 | 값 20,000원



최근 《여성 미술》, 《한국 화단과 현대 미술》 등 목직판 저작 2권을 한꺼번에 펴낸 김홍희 씨(샘지 스페이스 관장)는 미술계의 멀티 플레이어다. 전시 기획자, 미술관 관장, 교수직을 병행하면서 묶음 2권의 책은 저자가 10년 동안 꾸준히 발표했던 한국화단에 바친 미술 담론을 담고 있다. 특히, 거시적인 현대 미술의 풍경과 미술사, 역사서 등에서 소외되었던 여성미술의 흔적들을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기에 입체적인 미술읽기가 가능해진다. 이 중 1권인 《여성 미술》은 남성 위주로 기술된 기존의 미술사와 달리 여성으로 각을 좁혀 시각 창조 주체로서의 여성을 깊이 있게 보여준다.

“타자로 불리는 여성 이야기를 미술로 불러냈습니다. 여성들이 우리 미술계의 조형적 변화와 확장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 그 숙제는 무엇인가가 제 관심사죠.”

김홍희 씨는 ‘여성 미술’이 복수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해석되든지 페미니즘 미술이 여성 자체의 실존, 즉 사회적 경험을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사회 활동을 하는 커리어 우먼으로서, 미술을 전공한 학생으로서,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한국의 여성 미술, 현대 미술과 관련된 이론을 아울러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던 그는 글을 통해 이같은 자신의 생각을 반영했다.

“작품의 장르, 스타일 모두 진지하게 보려는 노력을 해요. 개인적 기호를 반영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준의 작품인가를 먼저 보죠. 굳이 손꼽자면 페미니즘, 테크놀로지 미술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의 여성 미술사(신미술사라고도 볼 수 있다)에는 나혜석, 천경자, 차학경 등의 작가들이 언급되고, 그가 풀어놓은 한국현대 화단 이야기 속에는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를 이루는 테크놀러지성이 소개되기도 한다. 이처럼 소외된 미술사, 미래 지향적인 작가들의 작품에 귀와 눈을 열어두는 그는 후배들에게 자기 자신을 차단하지 말고 모든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귀와 마음을 열어두라고 권유한다.

“여성이 중요하다는 구호만 외쳐서는 안되죠. 미술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여성, 젠더의 의미, 페미니즘의 발전사, 실천 영역 등을 공부하고 생각해가며 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후배들에 대한 애정, 미술에 대한 열정을 계속 표현하고 싶은 그는 그동안의 강의록을 정리하는 작업에 몰두해 있기도 하다. 또, 내년쯤 특정 분야와 관계없이 미술사에 관계된 작가들 이야기를 펴내는 작업도 구상중이다. 현재 출간된 책의 연장선에서 작가론을 덧붙임으로써 저작의 균형주를 맞

추려야 한다.”

샘지 스페이스뿐 아니라 그 공간에 젊은이들을 위한 통로를 열어둔 그는 그곳이 실력 있는 젊은 예술가들의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그가 《한국 화단과 현대 미술》의 말미에서 참여와 소통의 예술을 언급한 것처럼 미술관 역시 대화가 가능한 공간인 셈이다. 누구나 참여하고, 고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예술의 장. 그의 책 역시 미술전공 학생들뿐 아니라 화가들, 예술의 울타리를 넘어 그것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통로 중 일부분이다. 특히, 전방위 미술인으로서 한국 현대 미술의 요철을 중흥으로 누빈 현장성이 뛰어나다. **✎**

취재 김형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